

교육현안 해법 찾기 정책토론회 개최

양용모 도의원, 조례 제정 위해 진행... 학교주변 금연구정 지정,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최근 교육현안의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난 4일 개최된 토론회는 도내 학교 스쿨존을 포함한 주변 금연구역 지정과 도내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는 윤미연(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과 정옥희(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 총무, 김재

균(전교조 정책실장), 김경호(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승일(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이복임(도교육청 건강교육 장학관) 등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법률상 문제없는 것으로 보여 오는 2017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교육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토론회는 최영심(전국교육공무직전북지부 부본부장), 명민경(전국교육공무직전북지부 지부장), 광석철(전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인숙(도교육청 노사협력 주무관), 최선영(도교육청 노무사)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토론회에서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절반이상이 급식인력과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으로 이들이 처해 있는 고용불안정과 불합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차별 대우를 없애고 교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분야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양용모 의원은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7년도 상반기 중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문제점과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송성환, 경로효친대상 민주당 대표상

전북도의회 송성환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1회 대한민국 경로효친대상 시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을 수상했다.

지난 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 경로효친대상'은 NGO한국노년자원봉사(사)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전국민서로돕기운동본부 등이 주최·주관한 시상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모델 패션쇼, 축하공연 등을 열었다.

송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도라 생각하고, 구석구석 살펴 어르신들의 작은 어려움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운영위, 청와대 특수활동비 5%삭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대통령 관공비로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5%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146억9,200만원 중 5%에 해당하는 7억3,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총 46억4,800만원 중 4억 원을 감액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에 따라 야당이 청와대 업무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아울러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특수활동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14억7,000만원을 집행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변경했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 없이 집행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또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 916억7,500만원 중 올림픽 경호 사업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 시스템 설치 예산' 2억원을 감액했다. /뉴시스



대국민 담화 생중계 '썰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 세종2청사의 로비에 설치된 TV에서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생방송으로 중계됐지만, 이를 보는 공무원들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 "greatpark1819" 이메일 계정은 최순실이 19대까지 실질적 대통령 한다는 의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greatpark1819'라는 사용자 이메일 계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greatpark1819는 18대에 이어 19대에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폭로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최근 청와대 근무자에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개헌을 하든 말하든 최씨 일가가 실권을 쥐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Greatpark1819를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greatpark1819는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비서관을 제외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과 최순실, 정은화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들었다"며 "안봉근은 최순실의 명에 따라 수시로 인사개입을 자행했고, 이 비서관은 최순실 인사를 실행한 인물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정 비서관과 똑같은 합당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부산 엘스티 비자금은 언론 보도로 (드러났고) 얼마 전 끝난 농협중앙회장 선거 여기에도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사건의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우 수석은 인사농단의 주범이다. (그러나) 혼자했잖나"라며 "최순실과 공모해 인사농단을 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TV조선이 미르·K스포츠를 취재하는 언론동향 보고를 최순실에게 했다. 이에 최순실이 별도로 도주하고, 각종 증거인멸에 나섰다. 그럼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두 재단의 배후가 최순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 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 구속... "범죄사실 소명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최근 구속됐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지난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투게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

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이 아니지만,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죄를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주범으로, 최씨는 공범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또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투게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채려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 구속수사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

www.nonghyup.com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농심을 품고
협동조합이념을 가슴에 품고
농업인과 고객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농민 속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의지로
농민 속으로 다가하겠습니다

국민 곁으로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

고산농협	구이농협	봉동농협
북전주농협	삼례농협	상관농협
소양농협	운주농협	용진농협
이서농협	전주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전주원예농협	화산농협	

농민속으로, 국민곁으로

